

## 한민족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다

## 韓民族は本物のイスラエル民族である

한민족쿠와 홀모노노 이스라엘루 민족쿠데 아루

檀君はヤコブの長子

단군은 야곱의 장자

我われの檀君はどのような方であるかと言えば、聖書に記録されているヤコブの本妻ラケルの長子なのである。檀君の子孫がレバノンから東方に移住しつつ、イラク、イランを経て海を渡り、中國大陸を経てアルタイ山脈の麓、今のモンゴルで100年間暮した後、滿州を経て鴨綠江を渡って大洞江に至り、3000余年前に古朝鮮を設立したことを私は論じている。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본처인 라헬의 장자입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레바논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이라크, 이란을 거쳐 바다(카스피해)를 건너 중국 대륙을 거쳐 알타이산맥 기슭, 지금의 몽골에서 100년간 살다가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에 이르러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고조선을 설립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我われの民族はアルタイ語を使う民族なので東洋史では“アルタイ語族”と言うレッテルが貼られている。イスラエルの言葉であるヘブライ語を使っていた我われの檀君の子孫たちがあのレバノンの“ツォルア”の地で、200年間ヘリシテの軍隊と戦いながら勝負を決することが出来ず、そこで東へ東へと移住して来たが、その時こはヘブライ語を使っていたが、ヘブライ語を使っていた人達が100年間アルタイ山脈のすそので 暮らす間にすべて年老いて死に、その子孫がアルタイ山脈で暮らしながらその土地の言葉を使う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우리 민족은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동양사에서는 “알타이어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우리 단군의 후손들이 그레바논의 “소라” 땅에서 200년간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승부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100년간 알타이산맥 자락에서 사는 동안 모두 늙어 죽었고, 그 후손들은 알타이산맥에 살면서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アルタイ語を使うことになった子孫たちが滿州を経て鴨綠江を渡り大同江辺で古朝鮮を設立したのである。大同江で出土された瓦の中にヘブライ語で書いてある内容が「到着した」、また別の瓦には「聖徒が集まって祈り、天國を回復させよう」、「五つの花弁がある花と心を合わせて神の王國へ入れ」ということである。イスラエルの碑石に書かれている文字とその瓦の文字はまったく同じである。 이렇게 알타이어를 쓰게 된 후손들이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설립한 것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 속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도착했다, 또 다른 기와에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지’, 다섯 개의 꽃잎이 있는 꽃과 마음을 합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비석에 적혀 있는 글자와 그 기와장의 글자가 똑 같습니다.

我われの先祖がヘブライ語を使ったと言う事實はこれで間違いない、また、韓國民族がイスラエル民族である事に間違いないことは、百科事典にイスラエル民族の骨相と韓國

人の骨相が同じであると書かれている。そのことも我われの韓國人がイスラエル民族だと言う證據である。韓國人は白い服が好きであるが、イスラエル民族も白い服が好きだと聖書に書かれている。また、聖書にイスラエルの民族は人が死ねば麻布を着て‘アイゴ、アイゴ’と泣く書かれているが、地球上に人が死ねば麻布を着て痛哭する民族は韓國人とイスラエル民族以外にはないのである。우리 조상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로써 틀림없고, 또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임이 틀림없는 것은 백과사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골상과 한국인의 골상이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한국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흰옷(행1:10, 막16:5, 계7:9-12) 입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삼베옷(창37:34, 삼하3:31)를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운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상에 사람이 죽으면 삼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민족은 한국인과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韓民族はハナニムの神が共にする民族

한민족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민족

モ - ゼがエジプトに居た時、イスラエルの民を率いて曠野に出ようとエジプトの王ファラオに懇願したが許可して呉れないので、最後こはイスラエル民に命令して“家ごとに羊の血を門柱に塗り付けよ”と言った。すると門柱に羊の血を塗り付けたイスラエル民族の家家は何事の事故が無かったのに、門柱に羊の血を塗り付け無かったエジプトの家家に長子は全て死んだ。 모세가 애굽(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굽의 왕 바로(파라오)에게 간청하였으나 허락해 주지 않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기둥에 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기둥에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문기둥에 양의 피를 칠하지 않은 애굽의 집안에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エジプトの家の長子が死んだ事によって騒ぎは大きく、哀哭する者の聲が天を突く程になったのでファラオ王は恐怖におののきながらモ - ゼを呼び「君たちの民を望み通り連れ出せ」と許可をしたことである。そこでモ - ゼはイスラエル六十万の群衆を率いて紅海を渡り曠野に出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애굽 집안의 말인들이 죽으면서 난리가 났고 애국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니까, 바로왕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를 불러 “너희 백성을 원하는 대로 데리고 나가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60만의 군중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この時からイスラエルの民は羊の血を塗り付けると“獅子鬼”が人を殺さないと考える習慣が生じたのである。ところで、本物のイスラエルの民族である檀支派の子孫が韓國の地まで来たら羊がいないので、羊の血の色と似た小豆でお粥を作り、冬至の日に門柱に塗り付けるようになった。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면 ‘사자 귀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민족

##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天曹敎生(어)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해서 중생들을 구원 구제 한다는 뜻이다. 길성은 구세주를 의미하고 조림(照臨)은 조림(曹臨)으로서 구세주는 조(曹)씨로 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동음이의(同音異義)를 이용하여 진의를 감출 때 사용한다.

무릉도원지는 소사(素砂) 땅이다. 인부 지간(仁富之間)에 신선이 여러 사람을 모아 불사영생을 진리를 가르치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가에 있으며 만민의 피란처가 되느니라.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6도72궁, 여인 한 분, 6도81궁이 합일되신 하나님)의 생명수(감로해인)가 감도는 땅이니라. 돌우물에서 나오는 물에 이로우미 있으니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영생의 생명수의 근원이라. 한번 마시면 수명이 늘어나고 유행하는 모든 질병을 가히 피할 수 있느니라.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듯 삭막한 인간세상이 신선이 사는 선경으로 변하니니 금수강산(錦繡江山)이로다. 81궁 정도령 한 분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변화하니니 생명수에 목마른 자는 영원히 없으리도다.

## 賽四四 새사사

無後裔之血孫鄭 무후예지혈손정
何姓不知何來鄭 하성부지하래정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왕
再來今日鄭氏王 재래금일정씨왕
神出鬼沒此世上 신출귀몰차세상
擇之順人山人海小木多積
택지순인산인해소목다적
萬人仰見突出之柿 만인양견돌출지시
枝葉茂盛綠陰裡 지엽무성록음리
往來行人閑坐避暑 왕래행인한좌피서
解渴功德永生之水 해갈공덕영생지수
飲之飲者永生矣 음지음자영생의
代代孫傳之 無窮天呼萬歲
대대후손전지 무궁천호만세

뒤에 더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마지막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피가 이어져 오신 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무슨 성씨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운중왕(雲中王)이니라. 운중왕은 감로의 본체이며 갖

인 단지와 후손이 한국 땅까지 오니까 양이 없어서 양의 피 밧갈과 비슷한 팔죽을 쑤어서 동짓날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昔、韓國の女たちが嫁ぐ時、赤い“チマ”(スカート)を履き、黄色い“チョゴリ”の袖先に赤い布を足して付け、チョゴリに赤い結び紐をし、顔こはコンジコンジこを刷ったのは、赤色が鬼神を追い出す羊の血を象徴する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大變意味深い事實を細密に知っていることは、私の中に神が居らっしゃるからである。 옛날 한국 여자들이 시집갈 때 빨간 “치마”를 입고, 노란 “저고리”의 소매 끝에 빨간 끝등을 하고, 빨간 옷고름을 하고, 얼굴에는 연지끈지를 찍었던 것은 빨간색이 귀신을 쫓아내는 양의 피를 상징하기 때 문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뜻깊은 사실을 세밀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ところで、イスラエルの民、ヤコブの十二子息の子孫の中からどうして檀支派だけを東の端に行かせたかと言う事は、ハナニムの神が共にする人だけが知る秘密なのである。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열두 아들 자손 중에서 단지파만 왜 동쪽 고티머리로 보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韓國で出現した義人が世界を支配する

한국에서 나온 의인이 세계를 지배한다

檀支派、檀君の子孫の中から救い主が出ると聖書の創世記49章16節に書かれている。救い主が出る民族なので、イスラエルの民を一切何事もを抹殺しようとする魔鬼の計略が有ることを神は前もってご存知で、3,000余年前に遠くにある陽が昇る國、東方の地の果て、地の隅に既に移して置かれたのである。 단지파, 단군의 자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쓰여 있습니다. 구세주가 나오은 민족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3000여 년 전 만나면 해돋는 나라, 동쪽 땅끝, 땅 모퉁이 나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第二次大戰當時、ムソリニ、ヒットラー、スターリンが、ユダヤ人をすべて虐殺して殺した事實は、ハナニムの神が共にするイスラエルの民を抹殺しようとしたのが魔鬼の眞の作戦であったのである。これは世界史が證明している。 제2차 대전 당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이 유대인을 모조리 학살하여 죽였던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진정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 계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けれど、ハナニムの神が共にする我われ韓民族の中から救い主が出て來られるようになり、ハナニムは魔鬼が氣づかないようにして、前もって我が民族を東方の地の果て、地の隅に隠して置かれたのである。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한민족 속에서 구세주가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은,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우리 민족을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鳥々よ、静かにしろ。東から義人一人を呼び起こす。列國の王達がすべて來て屈服する。地の果て、地の隅からお前を呼び起こす」とは、救い主が韓國の地から出られることを聖書がイザヤ書41章1節から9節に記しておいたものである。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라.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라이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오심을 성경 이사야서 41장 1 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榮光尊貴 영광중귀
四時不衰之生生 사시불쇠지생생
片黨之人不義惡行 편당지인불의악행
如磨刀之石 不免入獄
여마도지석 불면입옥
重罪之人惡心 중죄지인악심
老日受代尊守儀理 노일수대존수의리
不離榮冠冠之十勝永遠安心
不離榮冠冠之十勝永遠安心
無法罪者無法之亡也 무법죄자무법지망야
有罪負戾水火 人人心覺
유죄부수술화 인인심각
後悔不離矣 후회불이의
六六--十六 육육--십육

하늘(하나님)은 선악(善惡)을 거울처럼 살펴보시니 각기 그 행위에 따라 보응(報應)을 받느니라. 감람나무 즉 정도령(구세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봄에 나는 푸른 풀과 같아서 영광과 존귀

를 얻어 사시사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무리를 지어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갈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지옥행을 면치 못하리라. 즉 ‘그 몸이 많아 무너져 죽으리라’라는 뜻이다(지옥地獄은 죽은 자를 묻는 땅속을 말한다).

큰 죄를 지은 사람과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죽을 때 그 대가를 받으며, 의리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빛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심승 정도령이 거한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살리라.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무법(無法)에 의해 망하고 죄 있는 사람은 멸망하니, 사람 사람마다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이를 모르는 자는 그 날에 가서 후회가 떠나지 않으리라. 부술수화(負戾水火)는 멸(滅)자의 파자이다. 로마서 2 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66)권이다.\*

박영학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b>윤봉수</b>	편집인 <b>박태선</b>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림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p>우 14679</p> 홈페이지 <a href="http://www.victor.or.kr">www.victor.or.kr</a>	<b>광고 및 구독신청</b>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